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6.545

JCCT 2024-11-66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학 교양교육과 글쓰기 수업 방안

General Education of University and Writing Class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김현주*, 양영하**

Hyun-ju Kim*, Young-ha Yang**

요약 4차산업혁명 시대는 기술 혁신과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이다. 이에 따라 대학 교양교육과 글쓰기 수업의 역할도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교양교육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글쓰기 수업이 어떻게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탐구한다. 교양교육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융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글쓰기 수업은 자아와 타인의 통찰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형, 협력적 학습 방안을 도입해 학생들이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 4차산업혁명 시대, 교양교육, 융합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협력적 학습

Abstract The existing educational paradigm is going to be changed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I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talents required in this era are not just transfer knowledge, but have practical skills based on creative problem-solving skills, cooperative learning and convergent thinking. In addition, the role of general education of university education and writing classes are also required to change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Key words :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General education, Convergent thinking, Problem-solving skill, Cooperative learning

1. 서론

최근 교육부의 대학 신입생의 무전공 선발 방침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이에 따르려는 노력과 더불어 여러 반발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 개혁에 대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무전공 선발은 역설적으로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고 벽을 허물자는 취지와 달리 전공

의 교양화와 교양교육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대학 교육의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4차산업혁명 시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교양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교양교육의 전통적인 분야 중 하나인 글쓰기 수업의 방향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회원,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부교수 (제1저자)
**정회원,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9월 30일, 수정완료일: 2024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7일

Received: September 30, 2024 / Revised: October 27, 2024
Accepted: November 7, 2024
**Corresponding Author: yhyang@smu.ac.kr
Dept. of Gyedang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Sangmyung Univ, Korea

특히,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인한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기계와 인간의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될 것이며, 기술의 발달 속도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빨라 모든 개인은 기술과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학습과 자기 계발을 지속해야 하는 생존의 조건을 갖게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성에 대한 윤리적인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기술 혁명으로 인한 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융복합 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윤리 실천 역량, 다양성 존중 역량 또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 중 하나가 대학의 교양과목이며, 이 중에서도 글쓰기 수업은 이러한 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진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 대화형 인공지능 검색 엔진과 관련하여 대학 교양 수업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진 시점이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특히 대학의 교양 글쓰기 수업의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일례로, 챗GPT나 뉴 Bing(new bing) 등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더해지고 있으며, 큰 문제점 중 하나로 딥러닝 기반의 텍스트 생성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조합되거나 재생산되는 점이 지적된다[1]. 딥러닝 기반의 텍스트 생성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조합되거나 재생산되는 점도 문제인데, 생성된 텍스트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문헌을 참고문헌으로 제시하는 등 거짓 정보를 재생산할 우려도 지니고 있어,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자는 질문 생성 능력, 글의 중간 산출물에 대한 메타적 읽기 능력, 출처 확인 및 보강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2]. 이와 같이 AI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교양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이러한 역량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논의는 교양교육과 글쓰기 수업의 의미와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그 해결점에 접근할 수 있다.

교양 글쓰기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고등학교까지 감각과 사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대학 수학을 시작한다. 대학의 글쓰기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사고력 계발, 자기표현을 통한 자아 성찰의 기회 제공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3]. 그런데 실제 현장에선 대다수의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사고력 계발을 위한 학습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감각과 사고의 주체를 미처 형성하지 못하고 학습에 임하게 된다. 학습자들이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때,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사고력 계발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즉, 자신과 사회의 관계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회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확장을 통해 가능하다. 대학 교양 교과로서 글쓰기 수업 중 자기 서사 쓰기 활동과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팀 활동은 바로 그러한 인식과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인 것이다. 스스로에 대해 글쓰기를 통해 탐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학습하고, 여러 계열의 구성원이 소통하며 글쓰기를 하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해 나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의 교양교육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글쓰기 수업의 의미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쓰기 수업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으로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양교육의 의미와 의의를 살펴보고 실제적인 글쓰기 수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에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과 글쓰기 수업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와 학계의 변화가 극명한 가운데 대학의 교과 목표와 내용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교양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교양교육의 지향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를 넘나들기 위한 융합형 인재 양성”[4]이라고 할 때, 이는 교양교육의 전통적인 의미인 “근본정신은 자유로운 지성이며 인성의 함양이고 역량의 체화”이며, “인성과 지성과 역량을 내면화하는 보편 교육”[5]의 시의적절한 의미가 된다. 또한, 교양교육이란 “여러 학문을 통섭하여 문화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품위와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체계”[6]로도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인성과 지성의 역량을 내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외부 세계를 해석하여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다. 더 나아가 “전문 분야의 경계를 넘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사고법,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등의 지적 기술을 습득”[7]하는 것이 교양교육의 목표라고 할 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복합을 이루어나가는 방향성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교양교육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교육은 인간을 성찰하여 가치를 높이고 정체성을 확장하는 윤리 역량을 위한 21세기형 인성 교육이다. 둘째, 교양교육은 융복합, 창의 역량을 위한 21세기형 지성 교육으로 지식의 단순한 수용이나 암기를 넘어서서 스스로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7]. 셋째, 교양교육은 타자와 소통해 나가는 다양성 존중 역량을 위한 21세기형 역량 교육으로, 4차산업혁명 사회에서 이는 타자에 대한 존중과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교양교육을 통해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인간성의 제정의, 생애 직업 능력의 제고, 교양교육을 통한 융복합적 창의성 제고가 이를 해결할 최적안임을 제시하였다[8].

교양교육 중 글쓰기 수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역량과 직접 연결된다. 각 대학의 교양교육의 지향점과 목표가 교양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중 글쓰기 수업이 이러한 방향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수업이다[4].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육의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제시되는데,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사고력 계발, 자기표현을 통한 자아 성찰의 기회 제공이 그것이다[3]. 이에 더해 한 연구에서는 교양교육의 목표인 보편적 지식과 인성 함양이라는 목표와 방향이 교양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교육에서도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글쓰기 수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9]. 보편적 지식과 관련하여 첫째, 일반적인 글쓰기와 대학 글쓰기에 대한 이해, 둘째, 글 내용에 대한 이해와 분석적, 통합적 사고를 통한 구성력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셋째, 소통 능력으로서의 문장력 향상을 제시하며, 인성 함양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성장하는 것 또한 글쓰기 수업의 목표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과뿐 아니라 교양교육은 현재 대학과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여러 어려

움에 부딪히고 있다. 그 중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교양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지하나 글쓰기 교육에 치우친 점, 인문학적인 관점에 국한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협업되지 않는 점, 융복합적인 디지털 교양교육이 적은 점 등이다[1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양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글쓰기 수업에서 전반적으로 구현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글쓰기 교과목에도 바로 적용된다. 즉, 다양한 자료의 이해와 사고의 확장보다는 쓰기에 치우치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다. 또한, 챗 GPT의 등장에 따른 교양교육의 방향 중 인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학철학 교육 강화, 융복합 교육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11]. 한편, 변화하는 시대 요구를 반영하는 것에 앞서 현재 제시되어 있는 교양교육의 목표도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곧, 대학 글쓰기 교육은 대학의 교양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교육 목표에서 교양교육과의 연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교육 내용에도 교육 목표가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일부분에 편중되거나 누락되는 것으로 나타난다[9]. 또한, 새로운 교양교육은 역량 기반 교육이어야 하는데[12], 이는 학생의 행위주체성에 기반하는 학습이어야 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실존적 성찰을 이끌어내는 내러티브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실제적 비전과 실천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된다[13].

교양교육의 목적은 거시적으로는 학생들이 교양인으로서, 동시에 학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소양과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있다. 이는 현 교양교육의 체계는 학생들의 능동성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을 목표로 하나, 그 실제에서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과 수동적인 학습 진행을 벗어나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각 교과의 교수 내용과 교수 방법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이는 교과 학습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며, 학생들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극복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변화하는 현재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바 중 공통되는 것으로 융복합성이 제시되는데[8][10], 이를 글쓰기 교육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계열별 수업을 벗어나는 탈계열, 또는 융복합과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의 탈

경계가 필요하다[13]. 곧, 자아 정체성의 확립과 탈계열의 방안으로 현시점의 교양 글쓰기 교과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양 글쓰기 수업의 실재와 수업 방안을 다음 3장에서 살펴본다.

III. 교양 글쓰기 수업 방안

1. 대학생의 성찰적 글쓰기에 나타난 내러티브적 의미 구성의 양상과 교육적 함의

대학 글쓰기는 2000년 중후반 이후 자기 성찰적 글쓰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표현주의적 관점의 글쓰기 흐름과 더불어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14][15], 최근에는 자아 정체성과 자아 인식의 담론 아래에서 글쓰기 수행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는 치유적 글쓰기의 한 형태로 성찰적 글쓰기를 강조하는 흐름도 살펴볼 수 있다[16][17][18]. 그렇다면 왜 이런 성찰적 글쓰기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일까. 이는 대학생들의 자아 정체성 형성과 맞닿아 있으며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아는 인종, 문화, 성별, 성적 취향, 국적 등의 요인들이 특정한 역사적, 저정학적 맥락 속에서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것이어서[19]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명확한 의미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은 누구나 그가 속한 집단의 요구에 맞추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해 가는 과정을 내면화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에서의 역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코 동일시할 수 없는 개성적 자아를 인지하지 못하고 집단의 요구에 맞춘 획일화된 자아상을 가질 위험이 있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청소년기의 자아상이 성년으로 접어든 대학생들에게 그대로 이월되기 쉽기 때문에 대학은 스스로의 자화상을 확인할 수 있게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 개념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나 통찰력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느끼게 하며 사회적 관계망 속에 정해진 틀에서 무감각하게 이를 내면화시키는 기재로 작용할

뿐이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각 개인이 자신의 현재 모습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고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사고를 확장시켜 자아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할 때 대학생들의 자기 서사 글쓰기는 무엇보다 필요한 자아 성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기 서사’란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자신의 삶을 전제로서 회고하고 성찰하여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이다[20].

이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소통적 글쓰기를 통해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를 ‘관계적 정체성’으로 부를 수 있다. 이것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텍스트 밖의 나와 텍스트 안의 나, 자신의 의지와 객관적 현실의 관계 속에서 구축된 것이기 때문이다[21]. 타인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서사는 대화의 형식이며,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체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다는 점에서 ‘구성적’인 정체성이다. 이것은 정체성이 본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험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2].

자기 서사 쓰기 수업의 운영 방법은 자유연상법을 활용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성인의 문턱을 넘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격과 관심사, 가치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이슈화된 MBTI가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는 가장 적합한 테스트라 여기고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대로 된 검사를 받거나 상담을 통해 자신을 검증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단편적인 기억의 파편들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연상을 통한 기억의 환기는 자기 서사라는 글감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많은 기억들 가운데 각 개인의 기억들을 소환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유연상법은 기억을 상기시키는 자극제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합한 방법이다. 기억의 조각들을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키는 서사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서사 쓰기는 개인의 경험, 가치, 신념 등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어려웠던 경험을 글로 풀어내는 것은 감정을 해소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마음의 안정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서사 쓰기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왔는지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고, 전공이나 진로 준비 등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23]. 이러한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자신에서 비롯된 성찰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와 사회와의 연결점을 통찰하게 한다. 이를 기반으로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과 협력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융복합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다.

2. 탈계열화와 팀 활동을 통한 융복합 역량 심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양교육의 본질 중 하나는 통섭과 확장이다. 개인의 역량을 내면화하고 타자와 소통하며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중 하나인 융복합 역량의 일환이기도 하다. 교양 글쓰기 수업은 교양교육의 본질과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방향성을 탈계열화와 팀 활동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융복합성과 창의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계열별 수업이 아닌 계열의 확장인 탈계열의 수업 운영이 필요하다. 계열별 글쓰기 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 그 중 이공계에 특화된 글쓰기의 문제점을 실험보고서와 과학 에세이 쓰기를 들어 제시한 연구에서는 실험보고서 쓰기를 강조하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융복합적 사고와 인재상이 필요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였다[24]. 또한, 과학 에세이 쓰기와 관련하여, 이러한 글쓰기는 궁극적으로 학술적 글쓰기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어서 굳이 과학 에세이라는 영역으로 학습자의 관심과 사고력을 가두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계열이나 영역을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활동의 융합도 필요함을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역량 및 사

고력 증진 목적의 교육과정 간 연계성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는데, 글쓰기를 익히는 과정에서 말하기, 읽기, 사고하기 교육 또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5].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존의 쓰기 활동이 중심이 되었던 글쓰기 수업에서 나아가 읽기, 말하기,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26].

이와 같이 교양 글쓰기 수업은 학술적 글쓰기의 기본을 다지는 것은 물론 자유로운 영역 탐색을 가능하게 하고 언어 기능과 도구의 확장으로도 나아가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탈계열화뿐 아니라 융합적 의사소통능력 계발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팀 활동이 필요한데, 이를 S대학교 교양 기초 교과인 <사고와 표현>의 운영 사례를 통해 살펴 보겠다. 이 수업에서는 단일 학과나 전공으로 팀을 이루지 않고 다양한 전공의 구성원이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서로 다른 전공을 탐색하고 각 개인이 전공 관련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구성원의 소속 전공 예시는 <표 1>과 같다.

표 1. 팀 구성원의 전공 및 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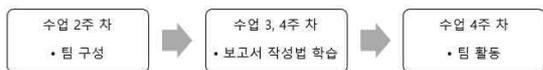
Table 1. Team members' majors and departments

A팀: 패션디자인전공, 디지털만화영상전공, 글로벌금융경영학부, 휴먼지능로봇공학과, 무대미술전공
B팀: 글로벌지역학부, 식물식품공학과, 환경조경학과, 스포츠경영전공,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C팀: 소프트웨어학과, 텍스타일디자인전공, 디지털콘텐츠전공, 글로벌금융경영학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팀 구성을 통해 한 학기의 수업 동안 다양한 팀 활동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팀 활동의 사례를 특히 수업 중 이루어진 보고서 작성법과 관련한 내용으로 살펴 보겠다. 보고서 작성은 개별 활동으로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파악하고 정리하며 여러 자료를 비판적으로 선별해 나감으로써 스스로의 사고를 심화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융복합 능력과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법을 전후로 주제 선정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 걸쳐 팀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이 상호 간 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의견을 나누어 나갈 수 있다. 한 학기 동안 한 편의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되 그 과정에서 팀원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

함으로써 자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보고서 작성법 수업 후 관련 내용으로 팀 활동을 실시한다. 이 팀 활동은 인용과 주석을 실제 논문 자료에서 찾고 확인하는 것이다. 팀원 대부분이 보고서나 논문 작성이 처음이고, 논문 자료를 찾아본 경험도 거의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 학생들은 수업에서 인용과 주석에 대한 이론을 배웠다고 하여도 실제 예시를 자신의 힘으로 찾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팀 활동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그림 2>에서와 같이 스스로 정한 보고서의 주제를 팀 활동을 통해 팀원과 공유하는 시간은 자신의 시야와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활동이 된다. 보고서는 자유 주제로 학생 각자가 학기 말까지 한 편을 작성하게 된다. 수업 4주 차에 자유롭게 각자 주제를 정한 후 팀 활동을 통해 다른 팀원의 주제를 확인하고 서로 피드백을 진행한 후 1차 주제를 수정하여 2차 주제를 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정보화와 가족 해체 현상 및 경쟁 사회로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노출됨에 따라서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 같은 정신 건강 문제에도 노출되고 있다(유혜선, 2018). 한국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WHO, 2017)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울이 자살의 중요한 기여 요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보영, 2009; 조항숙, 2009). 선행연구에서도 우울은 자살생각과 강력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관성은 자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 하여도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Goldney 외, 2002). 우울은 대인관계, 인지, 문제해결 능력, 사회생활 등의 적응력을 저하시키며 삶의 흥미를 잃게 하고,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행동 및 신체적 증상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하은혜 외, 2006). 심리적 스트레스(Psychological stress) 또한 개인의 건강에 장·단기적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문제를 일으키고 개인의 인지기능을 저하시켜 의사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음주와 흡연 등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등과 관련이 있다(Bartol 외, 2018; Azagba 외, 2011; Gutshall 외, 2017). 내주

그림 1. 보고서 작성법 수업과 팀 활동 예시
Figure 1. Learning how to write reports and examples of team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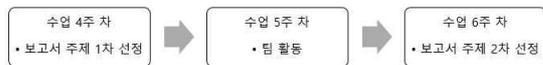


그림 2. 팀 활동을 통한 보고서 주제 선정 과정
Figure 2. Report topic selection process through team activities

이러한 팀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

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4학년도 1학기 <사고와 표현>을 수강한 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팀 활동 등 수업 전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보고서와 관련한 팀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보고서 작성법과 관련한 팀 활동에 대한 설문 문항은 두 가지이다. 문항 1은 보고서 작성법 학습 후의 팀 활동에 대한 것이고, 문항 2는 팀 활동으로 제시한 보고서 주제 선정에 대한 것이다. 문항 1인 ‘논문 찾기, 논문 속 인용과 주석 확인하기와 관련한 팀 활동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긍정 반응은 모두 90.1%로 조사되었다. 또한, 문항 2의 ‘팀 활동을 통한 보고서 주제 선정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긍정 반응도 74.6%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팀 활동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팀 활동이 도움이 되었는가와 같은 팀 활동의 유용성에 대한 설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유용성과 더불어 팀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에 있어서 소집단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소집단활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49.35%), 그다음 ‘보통이다’(31.17%)로 답한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7], 또 다른 조사에서는 소집단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그저 그러함’(31.4%), ‘약간 필요함(28.7%)’, ‘필요하지 않음(19.0%)’, ‘매우 필요함(11.5%)’의 결과가 나타나[28] 팀 활동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설문 문항과 결과
Table 2. Survey questions and results

문항 1: 논문 찾기, 논문 속 인용과 주석 확인하기와 관련한 팀 활동이 도움이 되었는가?		
구분	인원(명)	비율(%)
매우 그렇다	32	26.2%
그렇다	78	63.9%
그렇지 않다	11	9.0%
전혀 그렇지 않다	1	0.8%
(합계)	122	100.0%
문항 2: 팀 활동을 통한 보고서 주제 선정이 도움이 되었는가?		
구분	인원(명)	비율(%)
매우 그렇다	24	19.7%
그렇다	67	54.9%

그렇지 않다	26	21.3%
전혀 그렇지 않다	5	4.1%
(합계)	122	100.0%

교양 글쓰기 수업은 교양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교과 운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성찰을 통해 가치를 인식하고, 탈계열화와 팀 활동을 통해 융복합 능력을 심화함으로써 교양 글쓰기 교과의 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IV. 결론

4차산업혁명 시대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지식의 통합적 활용이 강조되며, 대학 교양교육에서도 그에 따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대학의 교양교육과 글쓰기 수업은 더 이상 단순히 학문적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비판적 사고,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글쓰기 수업은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교양 글쓰기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고등학교까지 사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한 채 대학 교육을 수학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대학 현장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사고력 계발을 위한 학습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감각과 사고의 주체를 미처 형성하지 못하고 학습에 임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의 교양교육의 의미를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글쓰기 수업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글쓰기 교육은 단순히 문법이나 형식에 국한된 지도를 넘어, 자아와 타인의 통찰에서 출발하여 문제 해결 중심의 글쓰기와 협업적 글쓰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학문적 글쓰기와 실용적 글쓰기 모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대학의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에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im Min-su, "A Study on What it Means to Teach Literacy in the Digital and AI Age",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7, No.2, pp. 83-96, 2023. DOI : 10.46392/kjge.2023.17.2.83
- [2] Chang Sung-min, "ChatGPT has Changed the Future of Writing Education -Focusing on the response of writing educ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Writing Research*, no.56, pp. 7-34, 2023. DOI : 10.31565/korow.2023.56.001
- [3] Kim Hyun-jeong, "The Goal and Contents of Writing Education in Major Universitie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vol.9, no.1, pp. 9-40. 2018. DOI : 10.37736/kjlr.2018.03.9.1.9
- [4] Kim So-ryun,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eaching college writings - Focusing on structural issues in the writing courses",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vol.12, no.3, pp. 277-298, 2021.
- [5] Paek Seung-su, "Search for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1, no.2, pp. 13-51, 2017. UCI : G704-SER000001745.2017.11.2.007
- [6] Park Yoon-cheol, "A Study on Model Development of Liberal Arts College through American Liberal Arts Colleges". *APJCRI*, vol.6, no.11, pp. 59-68, 2020. DOI : 10.47116/apjcri.2020.11.06
- [7] Kim Jong-ho, "Argument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Korea", *Legal Theory and Practice Review*, vol.11, no.2, pp. 215-260, 2023. DOI : 10.30833/LTPR.2023.05.11.2.215
- [8] Hong Seok-m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ignificance of Liberal Education, and the Need to Reform Its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6, no.2, pp. 65-79, 2022. DOI : 10.46392/kjge.2022.16.2.65
- [9] Son Da-jung, Kim Hey-ryoung, "Analysis of College Writing Syllabus for General Education", *Korean Linguistics*, vol.96, pp. 39-68, 2022. DOI : 10.20405/kl.2022.08.96.39
- [10] Nam Jin-sook,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Journal of General*

- Education*, vol., no.22, pp. 275-305, 2023. DOI : 10.24173/jge.2023.01.22.9
- [11] Yoon Ok-han, "The Emergence of Chat GPT and Exploration of the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Jour. of KoCon.a)*, vol.23, no.5, pp. 86-96, 2023. DOI : 10.5392/JKCA.2023.23.05.086
- [12] Park Jong-Jin,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based on key competencies for the innova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8, no.1, pp. 285-290, 2022.
- [13] Paek Seung-su, "A Didactical Reflection on Competency-Based Liberal Ar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6, no.2, pp. 49-62, 2022. doi : 10.46392/kjge.2022.16.2.49
- [14] Kim Joo-hyoun, "Why Is It Self - Reflective Writing? Case Study for 'Ewha Ecri, 2016'", *Korean Journal of Rhetoric(KJR)*, no.27, pp. 141-176, 2016. UCI : G704-002025.2016..27.006
- [15] Kim Hwa-Kyung,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Self-reflection Writing' Education: Focusing on the Concept of 'Authenticity'", *Citizen and Humanities*, no.43, pp. 39-64, 2022. DOI : 10.22842/kgucfh.2022..43.39
- [16] Oh Sei-eun, "A Study on the Effects of Humanistic Reflection and Self-analysis in University Freshmen's 'Therapeutic Writing'", *Culture and Convergence*, vol.43, no.6, pp. 213-232, 2021. DOI : 10.33645/cnc.2021.06.43.6.213
- [17] Jeong Yeon-hee, "A Proposal for 'Self-Reflection Writing' in the College Writing Education -Focus on the distinction between self-helf healing of writing and psychology healing", *The Studie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no.43, pp. 125-151, 2012. UCI : G704-001387.2012..43.005
- [18] Jeong Yeon-hee, "The Meaning and Method of Self-Reflection Writing in College Writing as Liberal Arts Education",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no.69, pp. 59-84, 2013. UCI : G704-000917.2013..69.016
- [19] Asber, N., "(En)gendering a hybrid consciousness", *Journal of Curriculum Theorizing*, 18(5), pp. 81-92, 2002.
- [20] Park Hye-sook, "Several Issues on the Self-Narratives by Women",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no.8, pp. 7-30, 2002.
- [21] Lee Yang-sook, "A study on writing education using self-narrative",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KLTC)*, vol.15, no.1, pp. 169-189, 2011. UCI : G704-000665.2011.15.1.009
- [22] Kim Soo-ah, "Self-narratives and Identity Construction in Online-writing",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KJJCS)*, vol.52, no.5, pp. 56-82, 2008. UCI : G704-000203.2008.52.5.014
- [23] Yun Il-hyun,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b-Seeking Stress mediation eff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12(2), pp. 136-143, 2024. doi : 10.17703/IJACT.2024.12.2.136
- [24] Choi Jun-ho, "A Critical Review on the Researches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Writing - Transition from Specialized Writing to Integrated Basic Writing -", *Culture and Convergence*, vol.44, no.12, pp. 9-22, 2022. DOI : cnc.2022.12.44.12.9
- [25] Kim Hyun-jeong, "A Study on the Unfolding Aspect and Development Plan of Writing Education at Major Universit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4, no.5, pp. 11-23, 2020. DOI : 10.46392/kjge.2020.14.5.11
- [26] Ji hyun-bae, "The goal of writing education in college". *Taekmin Korean Studies Institute*, no.27, pp. 227-249, 2021.
- [27] Lim Hye-won, "Effective Management Plan of Group Activities in College Liberal Arts Classe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7, no.2, pp. 227-238, 2023. doi : 10.46392/kjge.2023.17.2.227
- [28] Han Ji-young, Park Su-yeon, Bang jae-hyun,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Team Learning in Engineering Education",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JEER)*, vol.20, no.4, pp. 28-37, 2017. DOI : 10.18108/jeer.2017.20.4.28